

“지원금 70억 SW인프라 구축에” 타 학문과 연계 통한 융합교육 확대

SW 중심대학 선정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우리학교가 지난 3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SW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바탕으로 학생·기업·사회와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SW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엔 우리학교를 비롯해 광운대, 단국대, 조선대, 중앙대, 한동대 등 6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돼, 총 20개교가 ‘SW 중심대학’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5년에는 5:1, 2016년에는 5.2:1이었던 경쟁률은 올해에 이르러 총 38개 대학이 지원함에 따라 최종 6.3:1을 기록했다. 비교적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가 이번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조진성(컴퓨터공학) 교수는 “지속적으로 사업 선정을 위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을 72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고 SW융합학과를 신설했으며, 교양교과인 ‘소프트웨어적 사유(Computational Thinking)’를 운영하고 ‘경희 SW나눔봉사단’을 조직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최종 경쟁률 6.3:1

선정 배경은 사전준비

우리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11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차 년도인 2017년에는 10억 원, 2~4차 년도인 2018년부터 2020년에는 각각 20억 원씩으로 4년 간 총 7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원받는다. 4년간의 사업 수행 후에는 정부의 평가를 통해 추가 2년(2021년~2022년)동안 각 20억 원씩을 연장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관련학과(컴퓨터공학, SW융합학) 학생뿐 아니라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조 교수는 “우선적으로 학교 전체의 SW교

육을 위한 SW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실습비 및 실습장비 확충과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 전담교수 등의 인적자원에도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구축된 SW인프라는 전교생 대상의 SW융합교육 및 SW기초교육에 사용돼, 용인시 및 인근 지역의 초·중·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대 110억 원 지원금

SW융합·기초 교육에 투자

한편 SW융합학과 학생회 측에서는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SW융합학과 학생회 주민하(SW융합학 2017) 회장은 “실습실의 컴퓨터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다른 대학들에 비해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이 많이 열악한 편”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 게임엔진, 하드웨어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해봄으로써 학생들이 각자 지향하는 트랙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우리학교 측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으로는 ‘SW융합단과대학 설립’, ‘K-SW인재 전형 신설 및 장학금 전액 지원’, ‘KU SW부트캠프 프로그램’,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학·석사 연계과정’ 등이 있다.

‘SW융합단과대학 설립’의 경우 현재 전자정보대학 소속인 컴퓨터공학과와 SW융합학과를 떼어내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 학장은 “SW융합단과대학이 설

립되면 앞으로 융합 교육의 확대를 위해 예술디자인,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와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대학본부와 교수임용과 공간 활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19년부터는 ‘K-SW인재 전형’을 통해 30명의 학생이 선발될 예정이다. 컴퓨터공학과와 SW융합학과 정원의 20%가 ‘K-SW인재 전형’의 두 갈래인 ‘학생부 종합전형(20명)’과 ‘실기우수자전형(10명)’으로 나뉘어 선발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예정인 ‘실기우수자전형’은 SW관련 활동내역과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될 계획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K-SW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들은 직전 학기 성적이 3.5이상일 경우 4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KU SW 부트캠프 프로그램’은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SW 부전공프로그램으로, ‘창업형’, ‘취업형’, ‘인증형’, ‘실현형’ 중 하나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본인의 전공에 SW라는 무기를 부전공으로 장착해 미래사회에 주역으로 부팅될 수 있는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특성화된 ‘학·석사 연계 과정’도 도입된다.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학·석사 연계과정’이 그것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학·석사 통합 교육 과정을 통해 5년간 압축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사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지난 11일 서울캠 본관에서 열린 대학평의회

(사진=기호웅 기자)

김영란법 관련 학칙개정 논의 중

대학평의회 회의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 최고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 회의가 지난 4월 11일에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의 대표들이 모여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 병원 결산 자문 ▲우리학교 결산 자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학칙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는데 작년 3월에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칙을 명료화 또는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다. 서울캠퍼스(서울캠) 교무처 지은림 처장에 따르면, 제 42조 1 항의 교과목에 따라 시험을 미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 중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학기 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 추가시험, 특별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2항에 출석인정 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각 교과목 중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출석인정)의 사유로 인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제44조(주기시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주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했다. 제47조(성적경고)는 3항을 신설해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의무 수강하는 학기에 받은 성적경고는 제2항의 성적 경고제작에 필요한 연속 학기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 쳐장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해서 성적경고를 받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62조 결석계에 관련된 조항은 따로 운영되는 학사운영규정과 중복되어 삭제됐다.

개정안에 대해 총학생회

‘보완책 필요할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42조 1항 개정안에 따르면 과제 또는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던 시험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며 “여러 해석이 가능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다시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쳐장은 “학사관리 기준이 엄격해 짐에 따라 성적산출의 근거가 명확히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동문대표로 참석한 성기석 동문은 “42조에 대체시험에 대한 규정을 넣어주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스쿨 원장을 교무위원으로 포함하는 경우와 직책의 권한설정에 관한 부분도 논의됐다.

학칙 개정 논의로

정기시험 필수화

또한 2항에 출석인정 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각 교과목 중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2017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2017.4.17(수)~4.24(월)17:00

2. 원서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www.uwayapply.com>)

3. 모집전공

구분	재교육과정	양성과정
서울캠퍼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박물관·미술관교육, 보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상담심리, 영양교육, 유아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국제캠퍼스	교사리더십, 초등영어교육, 실용음악교육, 평생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유아교육

4. 지원자격: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학과 34학점 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이상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상업교육 4분야 이상)
- 그 외 전공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을 참고

5. 전형요소: 서류, 필기, 면접 등

6. 특전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장학금 지급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장교사(2급) 자격증 취득

7. 문의처

• 서울캠퍼스 : 02-961-0135~6

• 국제캠퍼스 : 031-201-2021~2

• 홈페이지 <http://edu.khu.ac.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0%	본교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모집장학, 모법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4~6)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접종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2017.4.24(월)~5.11(목)17:00

• 전형일: 2017.5.13(토) 10:3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전형료 면제(특별전형 특전)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교)출입증명증서부

• 대학교(교)성적증명서 1부

※ 문의처